

한·중·일 삼국의 대학생의 색명 인지에 연구

신혜영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

A Study on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Color Name in Korea, China and Japan

Syn, Hye-Young

Korea Color & Fashion Trend Center

1. 한·중·일 색명 비교 연구의 목적

색을 표현하는 많은 수단 가운데 색명은 사람이 색을 인식하고 사용하기 위한 표기법이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색명을 통해 그 시대, 그 문화에 있어서 어떠한 색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문화 색인의 지표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색채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은 스웨덴의 NCS(Natural Color System)를 개발한 스칸디나비아 색채연구소, 미국의 팬톤사, 일본의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를 연구한 일본색채연구소, 일본유행색협회, 중국의 중국유행색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의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색채에 관한 국가별 연구기관으로서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컬러의 연구는 지역적인 연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 기관이나 국가가 같이 모여 지역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국가간 공동 연구의 대표적인 색채연구기관으로는 국제유행색위원회(인터컬러 - Intercolor)가 대표적이다. 인터컬러는 세계 18개국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1년에 2번씩 모여 2년 후에 유행하게 될 색상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이다. 또한 미국의 주도 하에 컬러마케팅이 중심이 되어 연구되는 CMG(Color Marketing Group)와 환태평양 국가들의 연합인 PPFFC(Pan Pacific Fashion Color Committee) 등도 있다.

그러나 2004년 초까지만 해도 아시아가 주축이 되어 아

시아의 색채만을 연구하는 국가간 연구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아시아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국수출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도 필연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한·중·일 삼국의 색채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2004년 한·중·일 삼국의 색채연구기관의 주도하에 아시아컬러커미티(ACC-Asia Color Committee)를 결성하였다. 또한 아시아패션연합회(AFF-Asia Fashion Federation)의 아시아패션컬러연구회(AFC-Asia Fashion Color)가 발족되어 아시아 지역 색채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화된 사회일수록 세계를 하나로 보는 연구와 함께 지역적으로 특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아시아패션연합회(AFF-Asia Fashion Federation)의 아시아패션컬러연구분과의 업무로 수행된 한·중·일 삼국 대학생 색상인지에 관한 조사를 근거로 하였다. 한·중·일의 색채 전문기관인 한국의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 일본의 일본유행색협회와 일본색채연구소, 중국의 중앙미술학원 색채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가 한국의 대표로 결과분석을 맡았다.

연구내용은 한국, 일본,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한 일상적인 색명을 수집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국의 색채인식의 특성과 공통성을 연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컬러를 바르게 연구분석하여 아시아 지역의 문화 색인에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아

시아의 기업이 자국의 또는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색채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만족감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색채는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전달하며,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분위기를 연출하고, 기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등 갈수록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분야로 지역별 소비자의 색채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상품 디자인을 하거나 환경계획을 세우는 등의 색채관련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색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내 산업에서 색채의 비중을 높이 책정하여 연구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또한 조사도 선호도 조사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며, 색채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색상명 인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삼국의 대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색명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들의 색채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삼국인에 대한 색채연구의 1단계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두고자 한다. 동시에 향후 중심 소비자로 성장하는 20대의 색채의식을 통하여 기업의 상품기획 및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를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한·중·일 인지 색명 연구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대도시 거주 남·녀 대학생들로 이들의 인지 색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한·중·일 삼국의 서울, 북경, 상해, 도쿄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설문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10분간의 기억나는 색상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10분간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나는 색상 이름을 적는 동안 5분이 경과하면 알려주고 10분이 되었을 때 멈추게 하였다.

한·중·일 삼국에서 총 1,664명의 대학생이 응답하였

는데 유효 회답 수는 1,336명 이었다. 그 분포는 한국은 서울 지역 남학생 172명 여학생 226명으로 398명, 중국은 지역이 매우 넓으므로 두개 지역으로 나누어 북경 지역 남학생 195명, 여학생 269명, 상해 지역 남학생 191명, 여학생 204명으로 총 859명, 일본은 도쿄 지역의 남학생 201명 여학생 206명으로 모두 407명이다(표 1).

표 1. 설문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서울	북경	상해	도쿄
남학생	172	195	191	201
여학생	226	269	204	206
합 계	398	464	395	407

2) 용어정의

본 연구내용에는 색채관련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기업에서 사용하는 색채관련 용어,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 등이 나오나 이들이 모두 학술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만 특이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본 용어 정의를 실시하였다.

· 색상명 표기법 분석 : 본 연구의 설문지에 기록한 색상명이 표기되어진 상태대로 분석한 것으로 파랑, 블루, blue, 파란색을 모두 다른 색명으로 취급하여 분석한 것을 말한다.

· 색상명 의미별 분석 : 색상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같은 것을 모아 같은 색상으로 취급하여 분석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빨강, red, 빨간색, 빨간색과 같은 것을 하나의 색상으로 보고 정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 인지 색상 : 삼국의 대학생들이 기억해서 설문지에 적어 놓은 색상들을 의미한다.

· 기본 색명 : 기본 색명은 색상명의 기초 분류 시에 기본 색명으로 제시한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purple, pink, brown, white, gray, black 컬러이다. 이 기본 색명을 우리말로 옮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또는 녹색, 파랑, 보라, 갈색, 흰색, 회색, 검정 색이다. 기본 색명을 선정한 기준은 첫째, 복합적 색상의 이름이 아니어야 한다. Yellow Green과 같은 색은 복합적이어서 기본 색채어가 될 수 없다. 둘째, 보다 큰 색상 범위를 나타내는 색상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Carmine은 색상 영역이 더 넓은 Red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색명이 될 수 없다. 셋째, 특정 대상물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blond는 머리카락 색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색명이 될 수 없다. 넷째, 물질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은 제

외시켰다. 예를 들어 silver는 물질을 나타내는 색상이므로 기본 색명이 될 수 없다.

·톤(tone): 우리말로 색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톤 이라고 더 많이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색조 대신 톤이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vivid, light, soft 등의 톤은 선명한, 밝은, 부드러운 등의 형용사로 바꾸었을 때의 의미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영문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표기한다.

·색상: R, YR, Y, GY, G, BG, B, PB, P, RP와 같이 영문 대문자로 표기하는 색상은 그 색상의 계열로 묶은 모든 톤의 색상들을 통칭한다. 예를 들어 R의 경우 빨강색이 아니라 빨강색 계열의 모든 톤의 컬러가 합해진 컬러그룹이다.

3) 조사 연구 분석

설문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색상명의 기초 분류를 실시하였다. 색상명은 자국의 색상명과 외래 색상명으로 나누고, 자국의 색상명은 기본 색명과 기본 색명 이외의 색상으로 분류하였다. 기본 색상명은 11개의 기본 색상으로 용어 정의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빨강, 주

황, 노랑, 초록이나 녹색, 파랑, 보라, 갈색, 흰색, 회색, 검정색 이다(표 2).

다음은 색상명을 식물, 식품, 동물, 무기물 유기물, 염료 안료 섬유 원단, 자연, 과학 기술, 인간, 시(詩) 시대 장소 지명, 기타의 10개의 대분류 안에 각각의 세부분류 항목을 더한 중분류를 실시하였다(표 3).

그리고 색상명에 해당하는 대표색을 JIS 색표에서 가장 가까운 색상을 선정하였다(그림 1).

3. 한 · 중 · 일 인지 색명의 특성

1) 인지 색명의 수

1,66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국별 인지 색명의 응답률에 관하여 정리한 결과 중국은 응답수의 개인차가 매우 커서 가장 적게 인지한 4개에서 가장 많이 인지한 색상명이 100개까지로 차이가 많은 분포가 나타났으며 평균 응답수는 27.5개로 삼국 중 가장 적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6개를 인지한 학생에서 88개를 인지 한 학생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평

표 2. 색명의 기초 분류

		입력기호	
자국의 색명	기본 색명	1	하기 11의 기본 색명 이외
		11	Red에 대응하는 색
		12	Orange
		13	Yellow
		14	Green
		15	Blue
		16	Purple
		17	Pink
		18	Brown
		19	White
		20	Gray
외래 색명		21	Black
		30	읽기를 자국의 문자에 옮긴 색
		40	외국의 색명을 외국어로 표기한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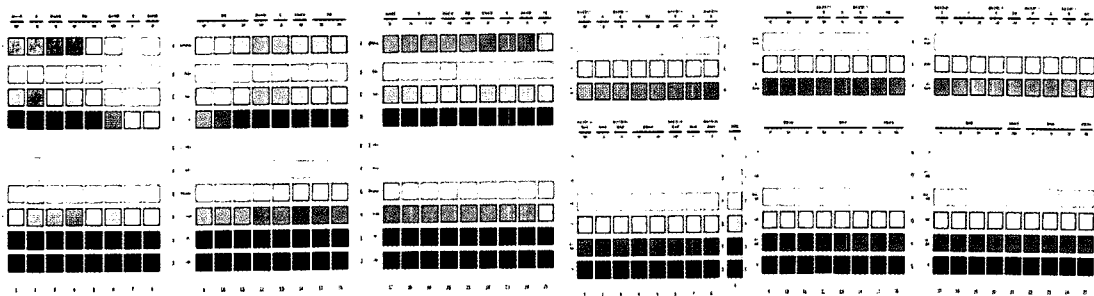


그림 1. JIS 색표

표 3. 색명의 유래에 의한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1	식물	11	꽃
		12	야채, 과일, 곡용, 식용식물
		10	기타 식물관련 - 목재, 나무, 나무열매, 뿌리, 줄기, 잎 등
2	식품	21	과자
		22	음료 - 술
		23	향신료
		20	기타 식품관련 - 요리, 식료품, 기호품 등
3	동물 (가공한 모피 등 동물성 소재의 색도 포함)	31	포유류
		32	조류
		30	기타 동물관련 - 파충류, 양서류, 곤충, 어류, 갑각류 등
4	무기물, 유기물	41	금속
		42	보석, 귀석
		43	흙, 모래, 바위, 돌
		44	도자기, 자기, 유리, 벽돌 등
		40	기타 무기물, 유기물 관련 - 석탄, 석유, 가루, 화장품, 종이 등
5	염료, 안료, 섬유, 원단	51	식물염료
		52	동물염료
		53	합성염료
		54	안료, 잉크, 그림물감
		55	섬유, 직물, 원단, 무늬
		50	기타의 섬유, 의복관련
6	자연		자연경관 - 바다, 산, 가족, 호수, 늪, 숲, 들판 등 주로 지상의 자연, 자연관련 지명도 포함.
		62	자연현상, 기상 - 하늘, 구름, 비, 연무, 폭풍 등
		63	우주 - 태양, 달, 별, 은하, 성층권 등
		60	기타의 자연 관련의 생성 물건 - 물, 물방울, 공기, 눈, 얼음, 서리, 불, 불꽃, 연기 등
7	과학 기술	71	인공적인 빛, 전광, 전기관련
		70	기타의 과학, 기술관련
8	인간	81	인명, 화가의 이름
		82	직종 - 스포츠관련 포함
		83	신체의 색
		80	기타의 인간관련 - 인종, 민족 등도 포함, 신화 상의 인물
9	시, 시대, 장소, 지명	91	시, 사계절, 계절
		92	시대, 역사
		93	장소, 지명 - 자연관련 지명을 제외한 국가, 도시이름 등
		94	축제, 행사
0	기타	1~9의 대분류에 속하지 않는 고유의 색상 명	

※ 사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색명은 분류에서 제외 하였다.

표 4. 한·중·일 삼국의 색명 인지수 분포

	한국(서울)	중국			일본(도쿄)
		합계	북경	상해	
최소값	6	4	4	4	5
최대값	88	100	98	100	94
평균값	36.7	27.5	28.0	26.8	38.9
중앙값	36	24	24	25	38
표준편차	12.8	15.7	16.5	14.6	11.99
총 색상 수	1,120	1,046			1,240

평균 36.7개의 색명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5개에서 94개까지 색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38.9개의 색명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국의 학생들이 인지한 색명의 수는 한국은 1,120개, 중국은 1,046개, 일본은 1,240개의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색상명을 인지하고 있었다(표 4).

2) 인지 색명 표기법

삼국의 대학생들은 어떠한 색상명을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한 색명 상위 200색상에 관하여 외래어를 사용하는 비율과 자국어어를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 보았다.

한국은 한국어 색상명이 59.8%, 영어 색상명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 32.3%이었으며, 영어식 색상명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회답이 7.9%로 3국 중 가장 많았다. 일본은 자국어어로 된 색상명이 43.1%, 영어식 표기의 색상명을 가타카나로 표기한 회답이 56.9%로 영어식 색명이 많았다. 중국은 중국어 색상명을 회답한 사람이 97.5%로 대부분이었으며 2.5%가 영어식 색상명을 중국어로 표기하였다.

3) 인지 상위 색명

색상명 표기법 분석의 결과 한·중·일 삼국 모두 11개의 기본 색명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분홍, 갈색, 흰색, 회색, 검정이 상위에 포함되어 있다. 기본 색명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오랜 색명에 관한 학습의 효과와 인지하기 가장 쉬운 기본 색명이란 점에서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색상명 표기법 분석결과와 색명별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한국은 보라, 일본은 흰색, 중국은 검정이었다. 한국의 보라가 1위로 나타난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보라는 Berlin & Kay의 1969년 연구, Kay & McDaniel의 1978년 연구의 기본 색채어의 진화단계상 최종 단계에 나타나는 색상으로 상당히 진화된 단계의 색상 인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해석된다(그림 2).

삼국 대학생의 인지 색명 2위로는 한국은 노랑, 일본은 빨강, 중국은 흰색 순이었다. 3위는 한국은 회색, 일본과 중국은 보라색이었다. 4위는 한국 빨강, 일본 노랑, 중국 회색, 5위는 한국과 일본은 검정, 중국은 분홍색이었다.

색상명 표기법 분석 순위에서 삼국 공통 6위에 식물 색명에 해당하는 황록색 계통의 색상이 등재되었다(표 5).

파랑색 이외에 파랑 계통의 색으로는 일본은 물의 색에서 유래한 물색이 등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하늘에서 유래한 하늘색, 중국도 하늘에서 유래한 天藍이 들어 있다.

살색의 경우 일본에서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여 17위(60.1%)에 기록되었다. 한국은 살색을 쓰지 않고 살구색을 쓰기로 계몽하고 있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색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위(53.7%)였다. 중국은 살색이 36위(25.5%)에 해당되어 비교적 적은 수의 응답분포를 볼 수 있었다.

브라운 계통의 색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갈색, 중국에서는 좀 더 밝은 색상인 황토색이 해당되었다.

메탈색상도 최근의 메탈 트렌드의 영향을 받아서 금색과 은색이 삼국 모두 상위에 기록되었다.

색상명을 계열별로 묶어서 출현률을 살펴보면 한·중·일 삼국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면서 국가별로 약간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인지한 색상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색상계열은 PB계열의 색상들인데 비해 일본과 중국은 R계열의 색상들이 가장 많이 인지되었다. 이는 기본 색채어의 진화단계상 첫 번째에 해당되는 빨강색 계열을 일본과 중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인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에 반해 한국의 대학생들이 인지한 빨강색 계열의 순위가 4위인 것은 빨강색에 대한 일종의 반감인 레드콤플렉스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R계열의 색상 인지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적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YR이나 RP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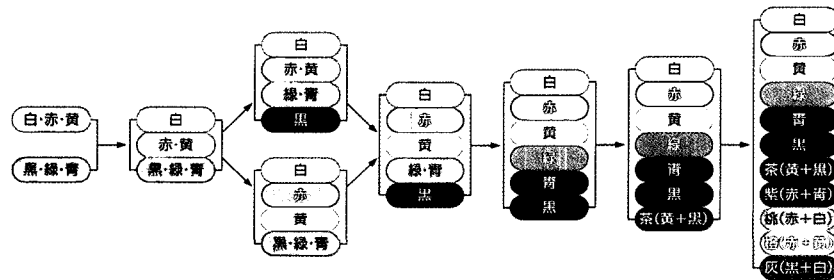


그림 2. 기본 색채어의 진화 단계
 자료출처 : Berlin & Kay, 1969, Kay & McDaniel, 1978.

표 5. 삼국의 인지 색명 20 순위

순위	한 국				중 국				일 본			
	색명	비율	코드	영어	색명	비율	코드	영어	색명	비율	코드	영어
1	보라	89.4	A21	P	黑(검정)	78.4	X6	Bk	흰색	92.3	X1	W
2	노랑	84.8	A7	Y	白(흰색)	74.9	X1	W	빨강	91.9	A2	R
3	회색	84	X3	Gy	紫(보라)	61	D23	P	보라	89.7	A23	P
4	빨강	83.5	D2	R	灰(회색)	56.5	Q17	Gy	노랑	87.5	A7	Y
5	검정	82.1	X6	Bk	粉紅(분홍색)	53.9	B1	Pink	검정	86.3	X6	Bk
6	연두	82.1	A9	YG	草綠(초록색)	48.7	D10	YG	황록색	86.4	A10	YG
7	파랑	81.6	A19	B	黃(노랑)	48.1	A7	Y	파랑	86.4	A18	B
8	하늘	79.9	B19	Sky	天(하늘)	48	A18	Sky	초록	85.3	A13	G
9	흰색	79.7	X1	W	土黃(황토색)	47.8	D6	BR	갈색	83.9	I5	BR
10	주황	78.9	A5	O	紅(빨강)	46.3	A3	R	분홍색	78.8	G2	Pink
11	남색	76.4	D19	dkB	大紅(진홍색)	45.8	A2	R	오렌지	74.7	A5	O
12	갈색	74.8	I5	BR	綠(초록)	45.5	D12	G	물색	70	F17	Sky
13	자주	73.7	I25	RP	藍(파랑색)	43.8	D19	B	금색	67	GD	Gold
14	은색	73.4	SL	Siver	燈(등색)	43.7	A5	O	은색	66.7	SL	Silver
15	금색	72.9	GD	Gold	深紅(심홍색)	41.2	D2	R	회색	65.2	X4	Gr
16	연보라	71.3	B21	itP	橘藤黃(데몬엘로우)	40.6	A8	gY	자주	62.3	A25	RP
17	카키	66.4	M8	Khaki	湖藍(연청색)	40.3	A17	B	살색	60.1	F5	pO
18	초록	66.1	D13	G	銀(은색)	40.3			황토색	54.6	H6	BR
19	분홍	59.9	B25	Pink	金(금색)	39			남색	53.8	I20	dkB
20	베이지	58	K6	Beige	黑綠(짙은녹색)	39	I13	G	등색	51.6	A5	O

의 인지가 양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 대학생들의 R계열 인지의 폭이 중·일 양국에 비해 상당히 넓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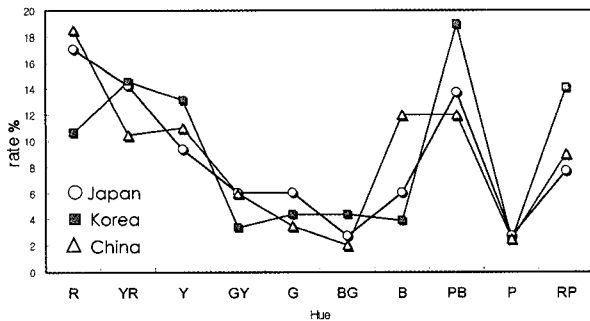


그림 3. 색상계열별 출현률

국가별로 인지 순위별 색상계열은 한국은 1위 PB계열의 색상, 2위 YR, 3위 RP, 4위 Y, 5위 R계열의 색상들이었고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은 GY계열의 색상들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1위 R, 2위 YR, 3위 PB, 4위 Y, 5위 RP계열의 색상들이었고 가장 적게 나타난 색상은 P계열의 색상들이었다. 중국은 1위가 R계열의 색상들로 일본보다도 더 많이 나타났다. 중국의 빨강은 역사적으로 매우 상서로운 색상으로 행복과 행운을 나타내는 색상이며 황색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색상으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색상이었다는 점과 공산주의 사회를 겪으며 공산주

의의 표시 색상으로서 빨강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든 경우라 하겠다. 2위는 B, PB가 동일하게 보였고 4위로 Y, 5위 YR계열이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보인 색상 계열은 BG계열의 색상들이었다.

이것을 다시 색상명별로 정리하여 삼국의 특성을 살펴 보면, 한국은 감색과 갈색계열의 색상명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RP계나 PB계의 보라색들 그리고 밝은 노랑색계열의 색상명이 많이 인지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적색, 감색, 황토색, 회색 영역의 색명이 많이 나타났다.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특히 황토색과 회색이 포함되어 있는 색명이 많았다.

중국은 적색기미의 갈색과 R계열의 색상이 많았고 밝은 노랑이나 감색계열의 색상명도 많이 나타났다. B계열이 많은데 비해 BG계열의 색상은 아주 적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그림 4).

4) 인지 색상의 톤

삼국의 대학생들이 인지한 색상을 톤별로 살펴보면 삼국 모두 가장 많이 인지된 톤은 vivid톤 이었다. 이는 색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원색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가장 기억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인지하고 있는 톤은 국가별로 차이가 보이는데, 한국과 중국은 deep 톤이 일본은 dark톤이었다. 3위는 한국은 dark톤, 중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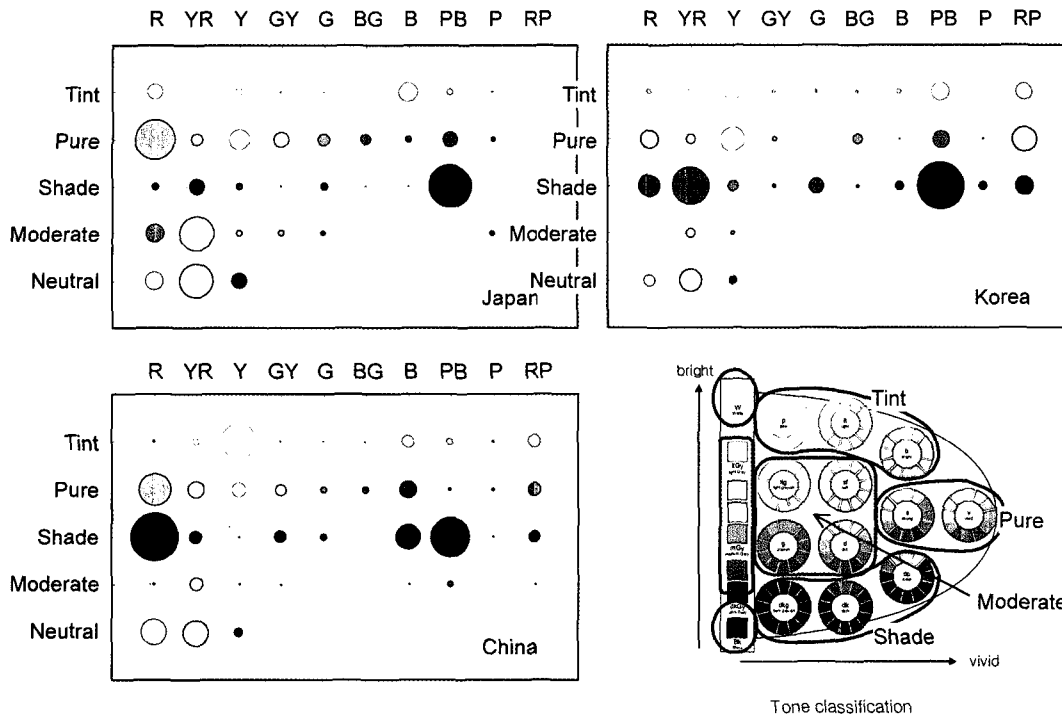


그림 4. 색명별 출현률

일본은 light톤이었다. 삼국의 톤별 인지 순위는 거의 비슷한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국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deep톤과 very dark톤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매우 적었고, vivid톤과 dull톤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비교적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deep톤, dark톤을 많이 인지한데 비해 soft톤이나 grayish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 결과이다(그림 5). 이는 soft톤이나 grayish톤에 해당하는 한국의 색상명이 별로 없으며, 있어도 일반적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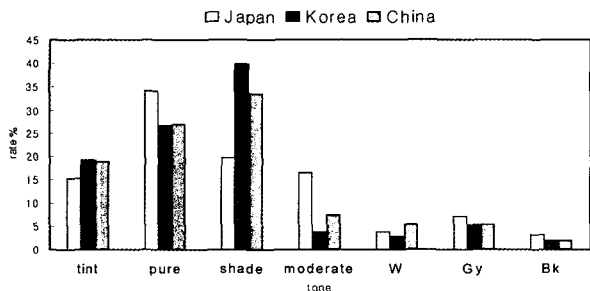


그림 5. 톤별 출현률

개별 톤의 인지에 관한 연구와 함께 톤별 인지 색상들을 비슷한 톤으로 묶어 tint, pure, shade, moderate톤으로 구분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그림 6).삼국의 학생들이 인지한 색상톤들은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어두운 톤에 해당하는 색상명이 많았다. 한국과 중국은 shade톤이 가장 많았고 일본은 pure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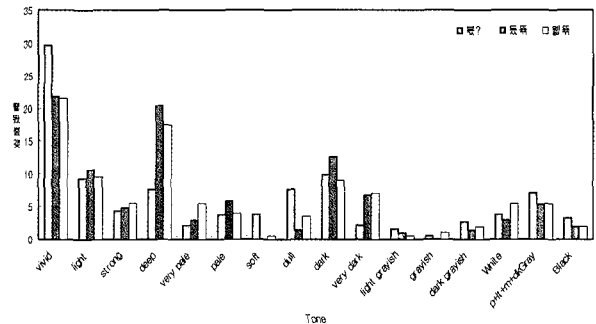


그림 6. 톤별 인지 색상

5) 유래에 의한 색명 분류

삼국의 학생들이 인지한 색상명에 대하여 그 색상명의 유래에 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 대학생들이 인지한 색명은 식물에서 유래한 색상명이 3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무기물과 유기물에서 유래한 색명 28.8%, 자연에서 유래한 색명 13.5%를 인지하였다.

일본 역시 식물에서 유래한 색명을 34.4%가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염료, 안료, 섬유 원단 등에서 유래한 색명 18.8%가 응답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무기물과 유기

물에서 유래한 색명을 17.2%가 응답하였다.

중국은 염료, 안료, 섬유 원단에서 유래한 색명이 51.6%를 차지하여 이 분야의 색명이 중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인지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식물 26.4%, 무기물 유기물로부터 유래된 색상명이 10.1%를 나타내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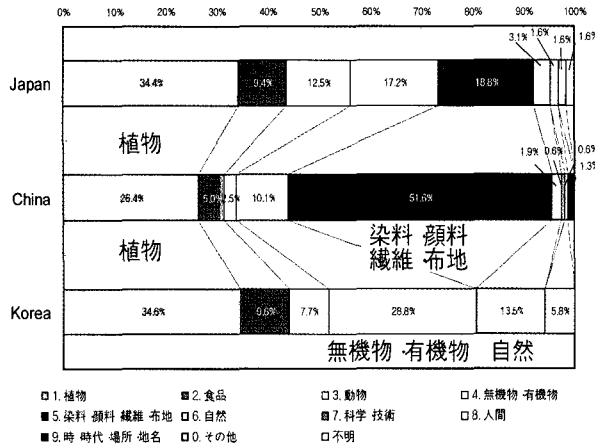


그림 7. 유래에 의한 색명 분류

색명의 분류에 있어 삼국은 공통적으로 그 근원이 식물이나 유기물, 무기물과 같이 자연에서 유래된 색상명이 많은 공통점과 함께 국가별 특성이 차이를 보이며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염료, 안료, 섬유 원단 등의 이름이 많은 것은 실크를 비롯해서 많은 섬유 원료의 생산지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의생활이 역사적으로 매우 풍부하였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척도라고 하겠다.

4.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아시아의 한·중·일 삼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색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삼국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별 특색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삼국의 대학생들이 인지한 색상의 수는 한국이 평균 36.7개, 중국 27.5개, 일본 38.9개로 국가별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색상 인지도가 다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삼국의 대학생들이 인지한 색상들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R~Y, RP와 같은 따뜻한 계열의 색상들과 PB 계열의 색상들을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중간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 G, BG, P 계열의 색상명들은 적게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PB 계열의 색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에 비해 일본과 중국의 학생들은 R 계열의 색상을 가장 많

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R 계열의 색상 인지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적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YR이나 RP 계열의 인지가 양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 대학생들의 R 계열 인지의 폭이 양국에 비해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톤의 인지에 있어서는 vivid톤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어 선명한 색상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밝은 톤보다는 어두운 톤을 더 많이 인지한다는 결과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은 상품을 기획하거나 컬러마케팅을 할 때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고 vivid한 톤이나 어두운 톤으로 소구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R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을 인지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국가의 색채를 연구함에 있어 국가 고유의 특성과 함께 그 국가가 속한 지역의 컬러 그리고 세계적인 색채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아시아 지역의 색채를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서 많은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한·중·일 대학생의 색명 인지에 관한 표기별 분석에 치중하였다. 앞으로는 그 색상 명을 인지한 것에 관한 의미별 분석을 비롯하여 색채 사용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 향후 아시아 지역 색채연구 및 발전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산업자원부. (2003).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컬러 마케팅 실태조사 보고서*.
 산업자원부. (2003). *산업 Web 컬러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보고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 *한국표준색이름, 계통색 이름 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혜영, 심영완, 최미영. (2004). 국내 브랜드의 컬러 마케팅 활용실태 조사, *한국색채학회지*, 18(2), 67-81.
 에바헬러. *색의 유희*. 이영희 옮김 (2002). 서울: 예담출판사.
 Birren, F. (1990). *색채심리*. 김희중 옮김 (2003). 서울: 동국출판사.
 Kunihiko Takei. (1990). *Colour and Man*. Tokyo: Jiji Press Ltd.

신 혜 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공예학과 (박사 수료)
 현재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 이사